

불교학술단체 올 화두 '전산화'

불교학술단체들이 한문,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경전을 현대적 번역하고, 전산화하는 것을 올 주요 사업으로 정하는 등 경전 한글화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가고 있다.

동국대 부설 동국역경원(원장 윤희은) <아람경>, <법구경>, <화엄경>, <대부만경>, <비화경> 등 총 30여 책(冊)에 대한 개역 및 전산화를 진행한다. 특히 동국역경원은 우리말 번역에 있어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그 내용을 점검할 '상임종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여기에는 윤희은, 지관, 각성, 종범, 종진, 무비 스님 등이 참여했다. 번역이 다들어진 경전들은 10월부터는 동국대 부설 전자불전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인터넷 상에 공개할 계획이다.

전자불전연구소 소장 보광은 동국역경원과의 공동작업 외에도 <한국불교전서> 전산화를 추진하고, 5월중 'EBTI(전자불전협의회)' 대회를 동국대에서 개최

동국역경원

한글대장경 10월 인터넷 공개

전자불전

EBTI대회 5월 동국대서

고려대장경

'대장경 2000'에 한글경전 참가

국제원효학회

'대승기신론소' 등 5권 영역

한다. 경전 전산화 관련 유일한 국제 대회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한다는 의의뿐 아니라 국내에서 일찍이 주요 전산화 성과인 <한국불교전서>와 '고려대장경2000'을 세계인들에게 선보이는 자리 가 될 전망이다.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는 전산본 한역대장경인 '고려대장경2000'에 우리말 경전을 덧붙이는 작업을 당면 과제

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소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한글 경전으로 샘플(시범) 작업을 한 후 '고려대장경2000'에 우리말 경전을 붙일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전자본 화지도(ECAI)와 관련해 시험본전으로 제작한 '한국의 불상'의 데이터를 늘리고 세분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원효 스님의 저술을 영어로 번역·출판 계획을 하고 있는 국제원효학회(공동

회장 송석규는 올해 말까지 <대승기신론소>, <금강삼매경론>, <원효대승철학>, <원효-종요>, <원효 저술의 대중성과 의례> 등 총 5권을 첫 성과물로 내놓는다. 박성배(뉴욕주립대), 로버트 버스웰(UCLA), 찰스 몰러(도요가쿠엔대) 피터 그레고리(코넬대), 존 맥케이(인디애나주립대) 등 국내·외 학자들이 교정 작업을 하고 있다.

동국대 부설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목정배)은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팔리어, 산스크리트어, 티베트어 경전을 번역, 소개한다는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연구원은 지난달 '불교원전연구팀'을 발족하고, 국내 불교학계에서 가깝게 다루어온 초기 불교의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연구원은 5년 간 작업해 온 영어본 <불교문화사전> (가칭)을 하반기에 발간한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학술기행 中 산동반도의 한국불교

"무사 항해 기원" 종교적 귀의처

적산법화원 왜 지었나

이영자 <동국대 교수>

장보고 대사는 왜 이곳 적산에 법화원을 세워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까지 져야 했을까? 법화원은 말할 필요도 없이 법화경을 신앙하는 중심 도량이다.

엔닌의 일기에서도 말하고 있듯 송경의 식에 있어서도 닷에는 <법화경>을 강의하고, 밤에는 예불과 참회의 종교예를 행했다고 하며, 의례 때에도 스님의 선창에 따라 "나무약사유리광불"과 "나무대자대비관세음보살"을 큰 소리로 복창하였다고 한다. <법화경>과 관세음보살신앙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관음신앙은 <법화경> '보문품'에서 구세보살의 위신력에 의지하고 있다.

소중한 신라불교 유적지

산동반도 연해지방은 일찍부터 한반도와 왕래가 빈번하였는데, 8, 9세기 들어서는 더욱 밀접한 관계가 되어 신라인이 이들 여러 지역에 진출하여 거주하게 되었다. 장보고가 적산에 법화원을 건립한 것도 이러한 배경 하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그들이 고국을 왕래하려면 엄청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무사항해를 빌기 마련이었으니 법화경에 기초한 관음신앙이 성행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장보고의 해상활동과 적산법화원에 관한 이야기는 일본 헤이안 시대 천태종 승려(천대 3세) 엔닌 스님이 입당구법한 내용에서 일기체로 쓴 <입당구법승례행기>에서 비로소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 여행기는 하버드대학 라이사워 교수가 번역하고 주석을 달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막강한 동아시아 해상세력을 형성한 장보고와 그의 재당 신라인의 해상활동을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적산은 현지에서 적산(赤山)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적과 적이 중국발음으로 같은 '치' 음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산문의 뒷산 산정은 붉은 색의 기묘한 암석들로 덮여 절벽을 이루고 있다. 그 가운데 양쪽으로 솟은 바위 사이로 '용의 동굴(龍窟)'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 바위 기둥이 문처럼 생겼다고 하여 용굴이라 한다. 전설로는 용동에 재신(財神)이 살고 있다고 하여, 지금도 정월이면 이곳 주민들이 모여들어 분향하며



발재(發財)를 기원한다. 엔닌이 입당구법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가 교토(東京)에 적산명신(赤山明神)을 봉안하고 있다. 이들 명신이 적산 용동의 그 재신이었을까? 중국이 개방정책을 실시한 이후에도 적산 일대는 외국인들의 출입이 제한되다가 1987년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개방되었다. 이 무렵에도 한국인의 출입은 여전히 어려웠으나 일본인은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아무 것도 없는 법화원 유지에 여러 가지 기념물을 세우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산문에 들어서면 일본측에서 세운 크고 작은 석비가 20개나 있다. 산문 옆에 선 안내판의 "신라 장보고 장군이 건립하



적산법화원 대웅전. 앞줄 우측에서 네번째 목도리를 두른 스님이 현 주지이다.

고, 일본 엔닌이 입당구법 할 때 여기에 거주하였다."는 내용에서 우리는 중국측의 미묘한 입장을 살필 수 있다. 중국정부에서 이렇게 질을 짓고, 여러 가지 불사를 일으키는 까닭은 한국과의 우의를 다져 경제교류를 촉진하려는 의도겠지만 우리로서는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 엔닌 스님은 유숙객

어떻게 장보고 선단의 해상활동과 적산법화원의 건설, 그리고 재당 신라인의 생활상 등을 기록으로 남겨 후세에 그 자취를 알게 해 준 엔닌 스님의 공적이나 일본에 적산선원을 건립하는 등의 정신자세를 어찌 과소평가 할 수 있을까 마는 그러나 엔닌 자신은 어디까지나 적산법화원의 유숙객이었다. 결코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비단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도처에 산재한 관련 한국불교 관련 유적지를 찾아 그 정신을 기리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 안 될 것이다.

日 법륜사탑 594년 건축

기존설보다 100년 앞서
기동 X-레이 나이트 검사



세계 최고 목조건축물인 일본 나라(奈良)시 소재 법륜사 5층 목탑(사지)의 중앙 기둥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1백여 년 앞선 594년의 것으로 밝혀졌다고 일본 국립문화재연구소가 20일 밝혔다.

나라문화재연구소는 X-레이로 나이트를 검사한 결과를 공개하고 "이 절의 중앙기둥 연대가 새로 밝혀진 만큼 이 절이 재건된 것이 아니라 창건 당시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가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그 동안 일본 학자들 사이에선 법륜사가 670년 4월 화재로 소실된 뒤 708년부터 714년 사이에 재건됐다는 게 통설이었다.

동국대 문명대 교수는 "일본 학자들이 담징의 작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금당벽화 역시 6세기말~7세기 초 활약했던 고구려 화가 담징이 그렸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 셈"이라고 말했다.

607년 성덕(聖德) 소트쿠 태자가 창건했다는 법륜사에는 백제관음상으로 불리는 목조 관음보살 등의 백제 유물이 남아있으며, 사원 건물의 배치도 백제와 비슷한 한반도 문화의 자취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권형진 기자(inny@buddhapia.com)

능가사 대웅전 보물 지정

전남 고흥 능가사 대웅전(사지)이 보물(제1307호)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서정배)은 20일 능가사 대웅전이 "조선 중·후기 전남 남해안 지역 사찰 건축의 일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건물로 역사적 의의와 학술적 가치가 커 보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흥부원군 호성공신 흥진교서'를 보물(제1308호)로 지정하고, 전남 영암 '엄길리 암각매항명'은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능가사 대웅전은 18세기 중엽에 증건된 다표스 건물로, 이미 보물로 지정된 영광 불갑사 대웅전(제830호), 부안 개암사 대웅전(제292호)처럼 정면 기둥



머리에 기둥 상부의 공포를 받치는 부재를 뒀고(안초공 기법), 건물 내 외부에 연꽃봉우리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했다. 사찰 건축에서는 보기 드물게 포벽에 십자모양으로 된 팔각한 공포재를 도드라지게 새긴 것(침차)이 특징이다. 권형진 기자

"백제에 불교전파 마라난타 실존인물"

민희식 교수 주장

대영박물관 고문헌

삼국유사 기록과 일치



영광군 불감면에 상륙해 백제에 불교를 전해 준 인도 승려로 역사학에 기록되어 있는 마라난타는 실존인물인가. 이러한 의문점을 풀기 위한 마라난타 행적 규명 작업이 결실을 맺고 있다. 민희식 한양대 명예교수는 12일 '간다라에서 영광까지'를 주제로 작성하고 있는 논문의 중간보고서에서 "파리 국립도서관 및 대영박물관 부속도서관, 일본 국회도서관 등 외국 유수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와 파키스탄 현지 방문조사를 통해 마라난타가 중국을 거쳐 백제에 불교를 전파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 교수는 특히 대영박물관 부속 도서관에서 발견한 이수라프 칸 박사의 고문헌 선지에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와 일치하는 기록을 찾았다는 데 주목했다. 이 고문헌에는 "간다라 지방인 지금의 파키스탄 초타라흐트 마을에서 태어났던 마라난타는 384년 법성포에 도착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고문헌에는 마라난타가 30세에 초타라흐트를 떠나 실크로드를 따라 탁실라라와 페샤바르를 거쳐 14년 간 우전국, 동항, 동진, 장안, 낙양 등지에서 불교를 전파했다는 기록도 있다.

이외에도 민 교수는 "영광 법성포의 백제시대 지명이 아미타불이 변형된 아무포였다가 불법이 전해진 포구라는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그 후 법성포로 개칭됐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품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수를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2-021769 봉송황토마을

- ① 황토 주택 토굴시공
- ① 토굴 현장 출장감독
- ①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3)634-0223
팩스 : 063)34-1237

"불가견강비법 신비의효능"

[미·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뵈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밑 불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 프로에서 불가견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한계를 탈피하여(한박스 60포)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해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등풍, 신경통, 팔다리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게 좋다.
- 셋째, 풍풍에 특효이며 풍예병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여 피로를 제거하며 긴장을 완화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과 당뇨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는데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인체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 463번지
중미산 불심정사 전화번호 : (031) 771-1571
※ 마가목은 복수인 양방에 부양이 있으므로 7기의 미법이 있습니다. (016) 222-7701
보시금은 불심정사 불사기계에 쓰입니다. 정강 대 진 입장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여래원 거룡 범주스님의

신식 감정콩 '金檀花'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 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나네요.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 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운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 이고! 소변보다 더 쓰더라니까"

지극정상 93일 인간의 건강이 금과처럼 차곡차곡 쌓여 꽃처럼 만개하려는 범주스님의 소망이 담겨 저어준 감정콩의 이름이다. 신식콩 금단화를 만드는 방법은 스님의 비방으로 만든 액즙에 감정콩을 깨끗이 씻어 말린 뒤 액즙에 20여일간 담그어 두었다가 꺼내어 10여일을 말린다. 이 과정을 거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달. 이렇게 3번 반복해 감정콩 금단화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93일이나 소요된다. 콩은 '속퍼레이팅'이라 부르기도 하는 서리태를 사용한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정성을 다 해야만 하는 고달픈 작업이지만 그 과정 자체가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한다는 신념 때문에 힘든 줄 몰랐다고 범주 스님은 말한다.

"신식 감정콩은 특이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중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장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① 상담문의 ☎ (02) 3437-8282 ①